

# HEREN

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

JANUARY 2015

## 100<sup>th</sup> ISSUE SPECIAL

100인이 말하는 내 인생의 물건 100

실비아 다미아니의 밀라노 집

Beauty, Legend vs. Legend



# 내 인생의 물건

## 100th ISSUE with 100 PEOPLE

〈헤렌〉 100호와 2015년 신년호를 기념해 지난 8년 4개월 동안 인터뷰이로, 컨트리뷰터로 인연을 이어온 100분을 다시 한번 지면에 모셨다. 이들과 '인생의 가장 소중한 물건', '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물건'을 꺼내어보며 지난 시간과 추억의 의미를 되짚어보았다. editor 김세진, 조민정, 이기항, 정장조, 박지혜, 이선화, 정승혜, 정재희, 남경민, 이영신, 이지연 photographer 김춘호, 최창락, 정우영, 이현석



7

박서보  
화가

볼사리노 중절모

지난 11월, 파리 페로탱 갤러리에서 나의 대규모 개인전이 열렸는데 마침 그 다음 주가 생일이였다. 어떻게 알고 갤러리에서 이 중절모를 선물하는 게 아닌가. 챙이 짧고 소재가 좋은 중절모를 좋아하는데, 손주 녀석에게도 이런 모자는 선물 받아본 적이 없다. 캐시미어라는 소재와 색이 마음에 쏙 들어 매일같이 쓰고 다닌다. 팔십 먹은 늙은이가 파리 굴지의 화랑에서 회고전을 가졌고, 뜻깊은 생일까지 보냈으니 가장 의미 있는 물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.